

# 11월의 육계전망

장민기

버들농원 대표, 본회 부회장

## “연말연시 이후 육계값 불투명, 입식자제 요망”

지난달 육계전망에서는 육계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경고성 예고를 했다.

그 효과가 컸다고 생각된다.

종계장에서는 서둘러 노계를 도태했고 육계농장에서는 세미출하를 늘리고 출하중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육계값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계값 회복과 더불어 육계업자의 습성이 되살아나 병아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생산비가 이렇게 높아야 수입개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다.

□9월 육계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전기사료가 33,649%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25.2% 증가했고 10월 추정치가 32,100%으로 1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후기사료는 46,761%으로 전년대비 22.2%, 10월 추정치가 40,200%으로 22.0%씩 각각 증가했다. 또한 종계사료는 20,176%으로 전년에 비해 15.5%, 10월 추정치가 21,800%으로 30.1% 각각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월 육계값은 추석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연기와 불황으로 인한 세미출하 수수증가 및 출하중량 저하와 더불어 육계값 회복에 대한 기대로 닭출하를 지연시킴으로써 10월 하순 이후 11월 초순까지 빠른 속도로 닭값이 회복되었다.

11월은 육계시세보다 연말년시의 병아리 입추가 더욱 중요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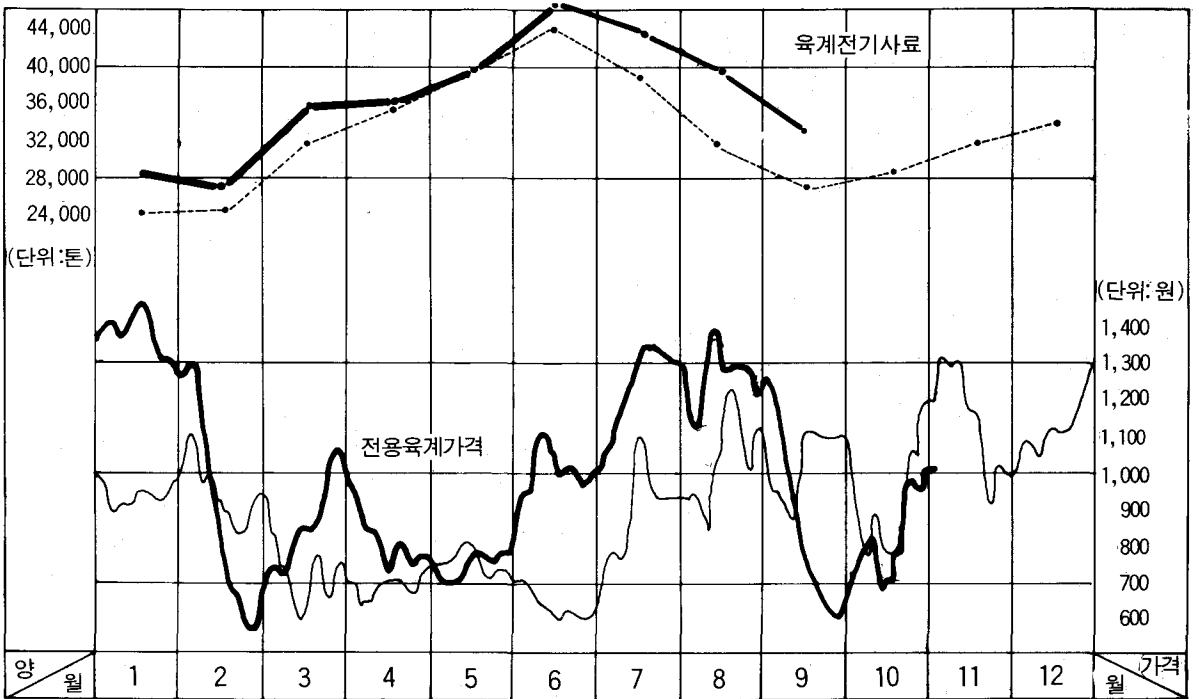
최근의 육계값 회복세와 더불어 병아리 입식과열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말년시 병아리 입주는 바람직스러운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종계의 생산성 저하와 초산일령이 평년보다 1달이상 지연됨에 따라 연말년시 병아리 생산에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육계값에는 호재로 작용할것 같다. 이말은 바로 연말년시 이후의 병아리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입식은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본 연말연시 육계값은 기대해 봄직하다.

표 1. 10대 사료업체의 주간사료 생산량

월	89.8			9				10			
	13~19	20~26	27~2	3~9	10~16	17~23	24~30	1~7	8~14	15~21	21~28
전 기	3,263	3,348	2,778	3,794	2,561	3,169	3,309	3,140	3,069	3,263	2,803
후 기	3,129	3,346	3,358	4,477	3,027	3,865	4,226	3,252	3,417	3,219	3,498
계	6,392	6,694	6,136	8,271	5,588	7,034	7,535	6,392	6,486	6,482	6,301
종계 88	1,354	1,619	1,106	1,453	1,397	1,352	1,387	1,301	1,538	1,440	1,357
종계 89	1,211	1,346	1,302	1,709	1,062	1,576	1,397	1,473	1,553	1,566	1,628



월별 육계전기사료 생산량과 전용육계가격

88년— 89년—

표 2. 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천수)	가격 (원/kg)	비교*
		전기	후기				
1	86	21.0	31.6	13,125	15,825	966	16,000
	87	21.7	27.4	15,630	16,208	1,002	
	88	24.0	32.8	15,000	21,597	947	
	89	28.4	28.3	17,765	22,532	1,363	
	89	28.4	28.3	17,765	22,532	1,363	
2	86	21.1	32.8	13,188	16,853	740	17,000
	87	23.4	31.0	14,625	17,088	726	
	88	24.1	31.1	15,063	22,637	951	
	89	27.2	33.8	17,000	23,373	900	
	89	27.2	33.8	17,000	23,373	900	
3	86	24.5	36.7	15,313	17,520	650	18,500
	87	26.5	35.4	16,563	17,931	816	
	88	31.8	40.5	19,875	23,710	712	
	89	35.7	41.4	22,319	24,283	829	
	89	35.7	41.4	22,319	24,283	829	
4	86	26.4	38.0	16,800	18,110	800	21,000
	87	30.3	37.9	18,938	19,003	880	
	88	35.2	46.6	22,000	24,983	682	
	89	36.0	43.9	22,500	25,258	803	
	89	36.0	43.9	22,500	25,258	803	
5	86	31.0	37.9	19,350	18,634	957	24,000
	87	32.8	39.9	20,500	19,854	972	
	88	39.6	49.7	24,750	25,471	747	
	89	39.6	46.5	23,063	25,477	779	
	89	39.6	46.5	23,063	25,477	779	
6	86	34.2	43.7	20,625	18,453	898	26,000
	87	40.1	50.1	25,063	20,108	816	
	88	43.9	55.8	27,438	24,665	646	
	89	47.1	48.1	29,438	22,321	998	
	89	47.1	48.1	29,438	22,321	998	

7	86	34.4	54.5	21,500	15,649	895	20,000
	87	38.2	62.6	23,875	19,050	858	
	88	38.7	59.8	24,188	22,022	908	
	89	44.2	50.7	27,625	23,191	1,190	
8	86	30.0	47.3	19,000	15,649	908	18,000
	87	34.3	56.2	21,438	17,962	602	
	88	31.7	42.0	19,813	21,192	1,055	
	89	39.2	45.4	24,500	20,542	1,265	
	89	39.2	45.4	24,500	20,542	1,265	
9	86	26.1	52.7	16,840	15,070	630	16,000
	87	29.2	56.9	18,250	17,612	511	
	88	26.9	38.3	16,813	19,813	1,014	
	89	33.6	46.8	21,031	18,845	814	
	89	33.6	46.8	21,031	18,845	814	
10	86	23.6	43.2	14,750	15,121	608	17,500
	87	25.3	49.9	15,813	17,946	447	
	88	28.5	33.0	17,813	19,618	912	
	89	추32.1	추40.2	추20,063	19,087	860	
	89	추32.1	추40.2	추20,063	19,087	860	
11	86	23.2	35.2	14,500	15,600	885	15,500
	87	23.6	40.3	14,774	17,162	611	
	88	31.9	35.3	19,938	20,824	1,094	
	89				20,072		
12	86	26.9	40.6	15,000	15,990	813	17,000
	87	27.0	39.6	16,875	20,337	731	
	88	33.9	40.8	21,188	20,082	1,117	
	89				20,125		
	89				20,125		
계	86	332.4	494.2	199,991	216,000	812	228,500
	87	352.5	528.1	222,344	220,261	747	
	88	389.6	506.6	243,498	266,614	899	
	89				265,106		
	89				265,106		

\*가격안정이 기대되는 해당월의 입식적정수